■ 오늘 제70주년 6·25 / 학도병 고우석씨의 참전 일화

"생명이 스러지는 전투, 소년이 감당하기엔 참혹"

전쟁발발하자 중학교 재학중 자원 입대
강원도 고성 전투서 포탄 파편에 큰 부상
"전투중 전사한 전우들 종종 생각나 눈물"

70년 전 18살 소년이 입대한 전쟁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나날이었다. 5년동안 "배고프다" "살고 싶다"를 수없이 외치며 살아남은 '소년'에게 당시의 기억은 지금도 문득문득 잠들 수 없는 참혹한 잔상으로 남아있다.

군번 0308016. 올해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를 통해 오늘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학도병 고우석(88·제주시 일도1동)씨.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는 육군에 입대하던 1950년 9월 1일부터 1955년 2월 15일 명예제대하던 날까지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과거를 그려 나갔다.

"못 잊지, 몸에 남은 흉터보다 그 어린시절 느꼈던 절박한 마음이 오래 가. '살고싶다'의 연속이었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고씨는 1933년 삼양동에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오현중학교에 다니던 중 자발적으로 군에 지원했다.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집에 들를 새도 없이 합숙훈련을 시작해, 제주 육군 제5훈련소 제3교육대대로 배치돼 훈련병 생활을 시작했다.

9월 26일 고씨를 포함한 2400명의 군인들을 태운 일본 선적의 병원선 '다카사고마루'가 제주를 떠나 부산항으로 출발했다. 출발 전 군중 속에서 겨우 가족의 얼굴을 찾았다.

"우석아, 이거 멩 가라. 이거 배에 멩 이시믄 총 맞아도 안 죽는댕 허더라." 누나가 1000번의 바느질로 수놓아 만들어준 복대를 단단이 여며 입으며 그는 눈물을 삼켰다. 여름엔 복대에 땀이 차서 피부에 이가 득실댔지만, 결코 벗을 수 없었다. "몸조심 행 꼭 살앙 돌아오라이"라는 어머니의 울먹임은 소년의 어린 마음을 적셨다.

인간의 생명이 눈앞에서 스러지는 장면은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참혹했다. 함께 제주를 떠난 청춘들이 총탄, 칼, 벽돌로 처참히 무너지는 장면도 목격해야 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라는 상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원도 양양·인제 등지에 펼쳐진 설악산에서 작전을 수행할 땐 극심한 굶주림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엔 목이 말라 계곡으로 내려가 흐르는 물을 마시고 상류쪽을 보니 시체가 물속에서 흐물흐물 썩어가고 있었다. 울컥 구토증이 일었으나, 고통을 감내하며 설악산 작전을 소화해 냈다.

이후 고씨는 강원도 고성 884고지 전투, 월비산 앞 261고지 전투 등을 거쳤다. 월비산 앞 261고지 전투를 회상하던 그는 옷을 걷어내 무릎에 난 흉터를 보여줬다. 포탄의 파편이 그의 철모를 찌그러뜨리며 목뼈를 스치고 무릎에 박힐 때 난 상처였다. 움푹 패인 무릎의 흉터만큼, 전쟁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고씨는 오늘(25일) 월비산 261고지 전투를 수행해낸 공적으로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리는 6·25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화랑무공훈장을 받는다. 그가 지휘한 제11중대가 북한군 1개 중대를 격퇴하는 공을 세웠는데, 손주가 '6·25전쟁 무궁훈장 찾아주기'를 신청한 덕분에 훈장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전쟁에서 죽은 전우들과 먼저 떠난 전우들이 종종 생각난다"며 "다시는 전쟁 말아야지, 전쟁이 끝나고 70년 넘게 평화가 이뤄져 오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강다혜기자

중학교에 재학중 6·25가 발발하자 자원입대한 고우석씨가 앨범속 사진을 통해 6·25 참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6·25전쟁 1129일'로 본 3년간의 참상

남·북 인구 1900만명 상흔 떠안아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10년 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중 36.9%가 6·25전쟁 발발연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 6·25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늘어났을까. 본보는 6·25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정문고가 발간한 '6·25전쟁 1129일'을 토대로 6·25를 소개한다. 이 책은 6·25전쟁 발발에서부터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의 '1129일'을 육하원칙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일자별로 기록했다.

▶6·25 발발=6·25전쟁은 일요일이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발발했다. 북한군은 제1~6사단, 제12사단, 제105전차여단을 앞세워 일제히 38선 11개 지점에서 국경을 넘어 침공했다. 북한군 선두부대가 임진강을 도하한데 이어 구룡포·울진·강릉·삼척·목포 북쪽 16㎞ 지점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오후에는 북한군 야크(YAK) 전투기가 서울(여의도)·김포 비행장을 폭격해 연료저장소가 불에 탔다.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북한 지상군 4만~5만명, 전차 94대가 남침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우마차를 이용해 피난에 나선 양민들의 모습으로 1950년 8월 7일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사진 출처='6·25전쟁 1129일'

정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대형 선박에 대한 징발 조치에 나섰다. 국제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로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소집 요청 서한을 발송했고, 미국 정부는 북한군 남침 책임이 소련에게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튿날 북한군은 빠르게 진격해 의정부와 문산을 점령했다. 정부는 급기야 6월 27일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해야 했다.

▶운명을 바꾼 전투=패전을 거듭하던 전세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뒤바뀌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해병대는 아침 일찍 인천상륙을 개시했다. 미국 226척, 한국 15척, 영국 12척 등 7개국에서 군함 261척이 참전한 이 작전은 미 도일 소장과 맥아더 원수가 진두지휘했다. 유엔군 7만여명이 인천에 상륙하고, 국군은 동쪽·서쪽 해안에서 협공작전을 펼쳤다. 북한군 병참선과 배후 공격의 목적을 띤 이 작전으로 4만5486명~4만5786명의 북한군이 숨지거나 포로로 잡혔다. 이후 전세는 급격히 기울어 9월 27일 한미연합군은 서울을 탈환했다.

▶1129일만에 휴전=1953년 7월 26일 전 전선이 일제히 소강상태를 맞았다. 이날 양군은 특별참모장교회의와 군사휴전위원회 회의를 했다. 그리고 오후 4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도쿄에서 성명을 통해 쌍방 수석대표에게 휴전협정을 맺을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오전 10시 해리슨 유엔군 수석대표, 남일 공산군 측 수석대표는 판문점에서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3개 국어로 작성된 휴전협정에 각각 서명해 길고 긴 1129일간의 전쟁을 종지부 찍었다.

▶피해 규모=전쟁의 상처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3년간 전쟁으로 국군 62만명, 유엔군 16만명, 북한군 93만명, 중공군 100만명, 민간인 250만명 등이 죽거나 부상 당했다. 여기에 이재민 370만명, 전쟁미망인 30만명, 전쟁고아 10만명, 이산가족 1000만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의 절반을 넘는 1900여만명이 전쟁의 상흔을 떠안았다.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6·25전쟁 1129일' 저자는 "휴전선을 평화의 선으로 변화시키려는 남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잃어버린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시간과 인내, 책임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지역 건설노동자 "7월 4일 총파업 동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개정과 불법 다단계 철폐 요구 등을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 4일 4만의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할 것"이라며 "제주에서도 1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참여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반토막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관급공사가 멈춰 건설노동자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법 준수, 건설안전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식당에서 손님을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 협박·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시15분쯤 같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민기자